

## 제 28장 학년별 글쓰기의 특성과 지도방법

### 1. 초등 1학년의 특성

#### 1) 발달단계의 일반적 특성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기이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기말을 먼저 하는 일이 많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친구를 기다려주지 못한다. 또한 상상한 것과 현실을 혼동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인습전도덕성의 시기이므로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낯선 사람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주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는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전개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나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쓸 때는 입으로 불러가며 쓰기도하고, 놀이를 하면서도 혼자 ‘피잉, 슈우웅’하는 말을 놀이 속의 상황대로 연출하기도 한다.

그림책을 좋아하고 판타지 요소가 들어있는 내용에도 관심이 크다. 그러나 아직 어휘력이 부족하고 집중시간이 짧으며,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이다. 특히 문법이나 문장력이 훈련되지 않아 완전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문장으로 나타내고 단락을 쓰는 것은 매우 어렵다.

#### 2) 글의 특성

- (1) 여러 가지 사물이나 행동을 자주 나열한다.
- (2) 제목과는 다른 말을 하거나 처음 하려던 말과 이야기가 달라지는 글을 쓴다.
- (3) 이야기가 내용 없이 길어지기도 한다.
- (4) 입말(중얼거리며 쓰기, 구어적 습관)이 살아있는 글을 쓴다.
- (5) 문장을 적당히 끊어 쓰지 못한다.
- (6) 일기를 쓸 때 ‘나는’ ‘오늘은’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 (7) 접속사를 알맞게 쓰지 못한다.
- (8) 글 끝에 습관적인 감상표현을 자주 한다. (참 재미있었다. 즐거운 하루였다. 등)
- (9) 독특한 아이들만의 어법도 자주 나타난다.
- (10) 시간, 시제를 나타내는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 (11)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쓰기도 한다.
- (12) 아쉬워서 자꾸 설명을 붙이기도 한다.

### 2. 초등 2학년의 특성

#### 1) 발달단계의 일반적 특성

이제 2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안정되며 대부분 읽고 쓰는 것에도 비교적 자유로워진다. 이 때부터는 경쟁심이 강해지며 또래에서 최고가 되려는 1등주의가 생긴다. 그러나 자신이 없는 아이의 경우는 도전하기보다는 미리 포기하여 위축되거나 나약해지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욕구가 강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서서히 만화 캐릭터나 유행상품, 개그맨에 관심을 보이고 따라하는 특성도 보이는 시기이다. 아직 특별한 친구를 만들기 보다는 가까이 있는 아이와 친하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으며 좋고 나쁜 것의 판단은 아직도 일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목독을 하기 시작하고 책의 장면을 상상하며 읽는 것이 가능해지며 복선이 깔린 구성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는 시기이다. 학습습관이 서서히 생기므로 이때부터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는 (30분 이내) 공부방법도 접목해보는 것이 좋다.

## 2) 글의 특성

- (1) 어느 정도 논리적인 글을 쓰기 시작한다.
- (2) 쓰고자 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쓰기도 한다.
- (3) 글감을 정확히 알고 소재에 맞춘 글을 쓴다.
- (4) 겪은 일을 쓰면서도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기도 한다.
- (5) 절실한 나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 (6) 나름대로 약간의 비판의식이 생기고 그것을 글로 표현해낸다.
- (7) 아직은 어휘가 부족하여 글 속에서 명료한 표현을 하기 어렵다.
- (8) 제목을 붙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여 뭉뚱그리는 내용으로 광범위한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 3) 1, 2 학년 글의 지도할 점

- (1) 문장이 끝나면 온점을 찍게 한다.
- (2) 입말로 써도 좋은 글임을 알게 하고, 천천히 표준어 교육을 시킨다.
- (3) 띄어쓰기를 지도하는 것이 좋다.
- (4) 고치고 싶은 부분을 스스로 찾게 도와주어야 한다.
- (5)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가에 관해 자세히 쓰게 한다.
- (6) “ ”, ‘ ’의 쓰임을 정확히 알게 한다.
- (7) 주변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 모두 좋은 글감이 됨을 알게 한다.
- (8) 알맞은 글쓰기의 갈래로는 서사문, 일기, 시 정도가 좋다.
- (9) 글을 지도할 때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잘못 쓴 부분을 색깔이 있는 펜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3. 초등 3, 4학년의 특성

### 1) 발달단계의 일반적 특성

일반적으로 10세경이 되면 모국어가 완성되고,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본다. 어휘력도 향상되어 일상용어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언어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글을 읽을 때에는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도 그려낼 수 있으며, 신화, 위인전, 영웅이야기들을 좋아하고 선악의 대립을 자신의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글을 쓸 때에도 다양한 표현을 할 줄 아는 시기이다. 그러나 익숙한 독서 습관과 글쓰는 훈련을 받은 어린이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만 독서습관을 갖추지 않았거나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어린이는 글과 멀리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양분되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또 이 무렵부터는 상상과 현실의 구분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환상적인 동화에서 조금씩 벗어나 현실인식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관심이 높아진다. 각각의 성향도 분명해져서 역사, 과학, 추리, 문학류의 책에 편중된 독서를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단짝 친구가 생기게 되고 힘센 친구, 혹은 특별한 특성을 가진 친구를 동경하기도 한다. 이를 심리학자들은 영웅주의가 싹트는 시기라고 한다.

또한 의욕이 넘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내기도 한다. 자아가 확실하게 생기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게 되고 유행이나 패션에 민감해지며, 자기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성향,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체력이 증가하고 수직분화가 생기는 시기이므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지배, 피지배의 관계를 인정하고 지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과 자신의 일과 말에 책임을 질 줄 알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와 내용은 점점 어려워지며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시작하며, 저학년 때보다는 오랜 시간 집중도 가능해지므로 공부습관을 들이게 해야 하는 시기이다.

글쓰기의 경우에서도 실제로는 훨씬 잘 표현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쓰려고 하거나 괜히 멋을 부리는 문장을 쓰는 경우가 있다. 겪은 일을 쓰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고 쓰는 것 자체를 지겨워하거나 싫어하는 어린이도 있으므로 강요된 글쓰기, 추상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지도방법이 필요하다.

아직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추리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뒷이야기를 상상하는 글쓰기나 나만의 책만들기, 다양한 감상문쓰기등도 가능해진다.

## 2) 글의 특성

- (1)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차분하게 쓸 수 있다.
- (2) 글이 밋밋해서 성의없게 느껴지기도 한다.
- (3) 남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 입장이 되어 쓰기도 한다.
- (4)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와 연결해서 쓸 수도 있다.
- (5)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한다.
- (6) 다양한 기록문을 쓸 수 있다.
- (7) 식상하고 습관적인 재미없는 글을 쓰기도 한다. (컴퓨터게임, 축구, 여행...)

## 3) 지도할 점

- (1) 글감을 정하면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구상하게 하는 개요짜기를 지도하는 것이 좋다.
- (2) 접속사의 특성을 정확히 알게 하고 글에 마땅한 것을 정확히 쓰게 한다.
- (3) 실제체험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개념으로 쓰는 글을 조심하게 한다.
- (4) 자기만의 말, 자기만의 표현을 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 (5) 가장 중요한 부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 알고 쓰게 한다.
- (6) 단락을 이해하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7) 높임법을 바르게 쓰도록 지도한다.
- (8) 글감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
- (9) 알맞은 글의 갈래로는 서사문, 일기, 시, 설명문, 감상문, 주장하는 글, 관찰하는 글, 조사하는 글, 생활극의 대본 쓰기 등이다.

## 4. 초등 5, 6학년의 특성

### 1) 발달단계의 일반적 특성

이 시기는 피아제의 구분에 따라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서는 단계이다.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주장하는 글이나 논설문 쓰기가 가능해진다. 생활의 범위도 넓어지며 사고의 패턴도 다양해진다. 도덕의식이나 책임감도 강해지고 개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어른의 권위와 체면을 인정한다. 특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기도 한다. 또한 지적 호기심이 매우 높아지면서 자신의 관심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반면 남의 의견을 조롱하거나 빈정거리기도 하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면서 상대에 대한 감정을 정반대의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구체적이며 진심어린 칭찬을 구분하므로 공치사나 칭찬을 위한 칭찬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6학년이 되면 지적 능력이 매우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결론을 유추해내는 귀납추리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이치를 따지는 것을 좋아해서 어른의 말에 꼬치꼬치 캐묻거나 따지기도 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다.

기억력은 최고조에 이르고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기 때문에 무리한 상대를 만나면 대들지 않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규범이나 규칙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에 놀이를 하면서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면서 재미를 느낀다. 자립심도 강해지므로 친구들과 쇼핑을 하거나 놀이공원에 다녀오기도 한다. 반면 자신에게 시킨 일을 동생에게 다시 시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미 자기만의 공부방법이 형성되어 있고, 아직도 부모의 권유와 편잔에 의해서 공부한다면 바로잡아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 전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므로 신문을 본다는지 뉴스를 접하게 하는 것도 좋은 자료가 되며 사회 문제에 관해 자신만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겠다.

### 2) 글의 특성

- (1) 또렷한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 (2) 자신의 생각이 아닌 관념적인 글을 쓰기도 한다.
- (3) 쓸데없는 말을 부리거나 건성건성 쓰기도 한다.
- (4) 여자어린이의 경우 결말을 매우 비관적으로 쓰기도 한다.
- (5) 자세히 쓰기는 하지만 마음이 전해지지 않는 밋밋한 글을 쓴다.
- (6)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것이 글에 잘 나타나게 쓴다.
- (7)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면서 사회현상에 관해 비판적인 글을 쓸 줄 안다.
- (8) 글을 잘 쓰는 어린이와 그렇지 못한 어린이의 글은 차이가 심하다.

### 3) 지도할 점

- (1) 문단의 연결이 전체 글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문단쓰기를 정확히 지도해야 한다.
- (2) 관념적이고 상투적인 표현이 없는가 지도해야 한다.
- (3) 사실을 정확하게 써서 자기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지도한다.
- (4) 자기만의 의견, 자기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5) 사회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 주장을 드러낼 줄 알도록 지도한다.
- (6) 솔직하고 진실한 글을 쓰도록 지도한다.
- (7) 알맞은 글의 갈래로는 서사문, 시, 일기, 설명문, 감상문, 주장글, 논설문, 관찰하는 글, 보고서, 대본쓰기, 논술문 쓰기 등이다.